

MA 가격하락 계속

삼경·제철 700원선 ... 94년초 반전 예상

국내 무수말레인산(MA : Malic Anhydride)시장은 수요가 1만4000톤 정도에 불과한데도 대농유화 1만8000톤, 삼경화성 4000톤, 신화유화 2만5000톤, 제철화학 1000톤 등 모두 4만8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3년 수출물량은 1만톤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각한 가격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수말레인산 가격은 국내 생산기업별로 약간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농유화와 신화유화는 KG당 800원선이며, 부산물의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 삼경화성 및 제철화학은 KG당 700원선에 거래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93년 4/4분기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94년초부터 현재가격에서 약간의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A국제가격도 약세를 보이는데, 이는 92년 유럽 지역 MA공장의 폐쇄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만·인디아·일본 등 동남아국가들과 미국이 무분별하게 증설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한편, 신화유화·대농유화는 국제가격 하락과 국내 공급 과잉 현상에 따라 기존 동남아 및 유럽, 중·남미 외에 중국을 유망시장으로 보고 시장개척을 서두를 방침이다. 신화유화는 현재 월 400톤 유럽·미국 수출물량을 향후 300톤 정도로 감소시킬 계획인데, 이는 자체공정상 원료의 개념인 무수말레인산을 1,4 BDO 및 THF 공정상 원료로 투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농유화도 남아도는 무수말레인산을 자체 무수프탈산 및 사과산 공정에 투입, 수출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무수말레인산 유럽 및 미국 수출가격은 F.O.B 620~630달러수준으로 93년 하반기에 톤당 20~30달러 정도 올라 94년초에는 톤당 65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무수말레인산 92년 총생산량은 2만8596톤이었으며, 이 중 내수판매는 9992톤, 로칼수출 2157톤, 직수출량은 1만553톤, 자가소비분은 6006톤으로 밝혀졌다.

대농유화는 92년에 1만2718톤을 생산, 내수에 5003톤, 로칼수출은 1386톤, 직수출량은 6457톤을 차지했다.

신화유화는 1만1817톤을 생산, 내수에 1295톤, 직수출에 3886톤, 자가소비분에 5977톤을 각각 판매했다.

MA 용도별 수요량 (단위 : M/T, 월)		
구 분	수 요 처	월별 수요량
불 포 화 수 지 업 계	애경화학	380
	내소날합성	200
가 소 제 (D O M)	삼경화성	10
	송원산업	10
	코오롱유화	10
	오성화학	5
종이사이징제	동성화학	5~7
	이안산업	5~7

<화학저널 1993/10/25>